

4.2 레버리지와 아웃라이어

레버리지

개별적인 데이터 표본 하나하나가 회귀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레버리지 분석이나 아웃라이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.

레버리지(leverage)는 실제 종속변수값 y 가 예측치(predicted target) \hat{y}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값이다. self-influence, self-sensitivity 라고도 한다.

가중치 벡터의 결과값을 예측식에 대입하여 y 와 \hat{y} 의 관계를 다음과 같다는 것을 보였었다.

$$\hat{y} = Hy$$

이 행렬 H 를 **영향도 행렬**(influence matrix) 또는 **hat 행렬**(hat matrix)이라고 한다고 하였다.

행렬 H 의 i 번째 행, j 번째 열 성분을 h_{ij} 라고 하면 실제 결과값 y_i 과 예측값 \hat{y}_i 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.

$$\hat{y}_i = h_{i1}y_1 + h_{i2}y_2 + \cdots + h_{ii}y_i + \cdots + h_{iN}y_N$$

레버리지는 수학적으로 **영향도 행렬의 대각성분** h_{ii} 으로 정의된다. 즉, 레버리지는 실제의 결과값 y_i 이 예측값 \hat{y}_i 에 미치는 영향, 즉 예측점을 자기 자신의 위치로 끌어 당기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.

만약 h_{ii} 값이 1이 되고 나머지 성분들이 모두 0이 될 수만 있다면 모든 표본 데이터에 대해 실제 결과값과 예측값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.

$$h_{ii} = 1, h_{ij} = 0 \text{ (for } i \neq j) \rightarrow \hat{y}_i = y_i$$

하지만 곧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. 레버리지값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.

1. 1보다 같거나 작은 양수 혹은 0이다.

$$0 \leq h_{ii} \leq 1$$

2. 레버리지의 합은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갯수 K 와 같다. 모수에는 상수항도 포함되므로 상수항이 있는 1차원 모형에서는 $K = 2$ 가 된다.

$$\text{tr}(H) = \sum_i^N h_{ii} = K$$

이 두가지 성질로부터 레버리지 값은 N 개의 데이터에 대한 레버리지값은 양수이고 그 합이 K 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즉 K 라고 하는 값을 N 개의 변수가 나누어 가지는 것과 같다. 현실적으로 데이터의 갯수 N 는 변수의 갯수 K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특성을 적용하면 모든 레버리지 값이 동시에 1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.

위 식을 이용하면 레버리지의 평균값도 구할 수 있다.

$$h_{ii} \approx \frac{K}{N}$$

보통 이 평균값의 2~4배보다 레버리지 값이 크면 레버리지가 크다고 이야기한다.

statsmodels를 이용한 레버리지 계산

레버리지 값은 `RegressionResults` 클래스의 `get_influence` 메서드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. 우선 다음과 같은 가상의 1차 데이터로 회귀분석 예제를 풀어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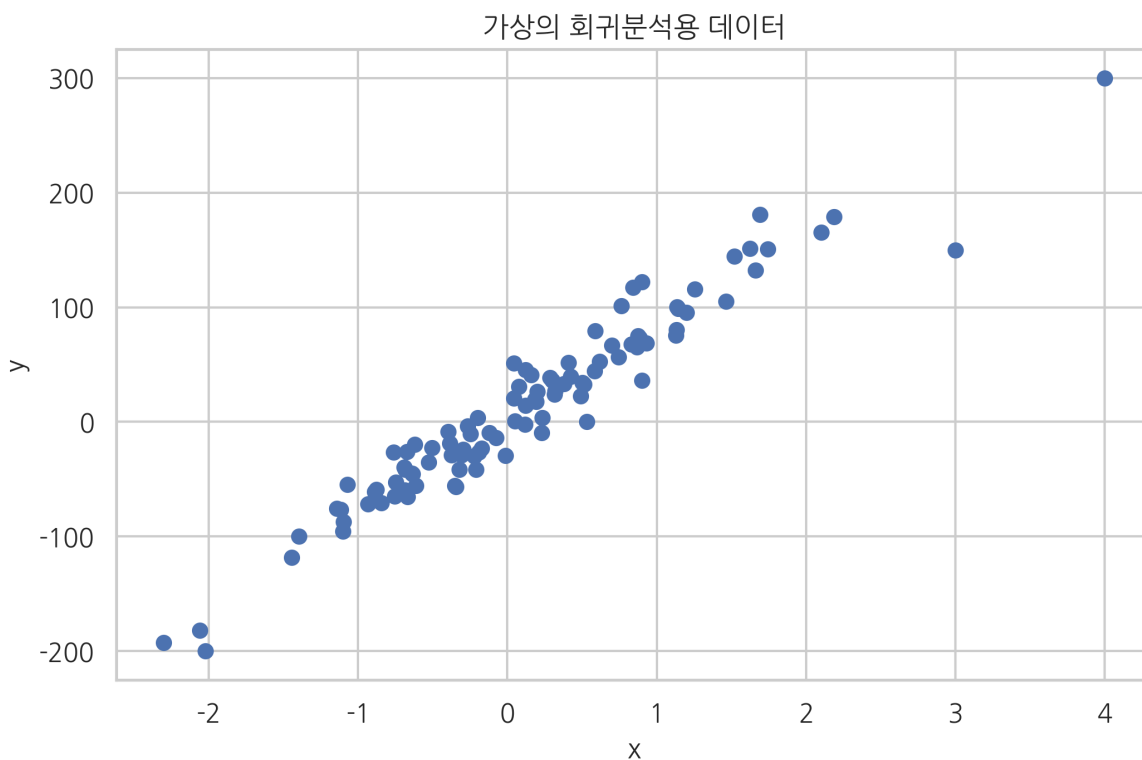
In [1]:

```
from sklearn.datasets import make_regression

# 100개의 데이터 생성
X0, y, coef = make_regression(n_samples=100, n_features=1, noise=20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ef=True, random_state=1)

# 레버리지가 높은 가상의 데이터를 추가
data_100 = (4, 300)
data_101 = (3, 150)
X0 = np.vstack([X0, np.array([data_100[:1], data_101[:1]])])
X = sm.add_constant(X0)
y = np.hstack([y, [data_100[1], data_101[1]]])

plt.scatter(X0, y)
plt.xlabel("x")
plt.ylabel("y")
plt.title("가상의 회귀분석용 데이터")
plt.show()
```



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형회귀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In [2]:

```
model = sm.OLS(pd.DataFrame(y), pd.DataFrame(X))
result = model.fit()
print(result.summary())
```

OLS Regression Results

Dep. Variable:	0	R-squared:	0.936
Model:	OLS	Adj. R-squared:	0.935
Method:	Least Squares	F-statistic:	1464.
Date:	Fri, 19 Apr 2019	Prob (F-statistic):	1.61e-61
Time:	09:35:48	Log-Likelihood:	-452.71
No. Observations:	102	AIC:	909.4
Df Residuals:	100	BIC:	914.7
Df Model:	1		
Covariance Type:	nonrobust		

	coef	std err	t	P> t	[0.025	0.975]
0	3.2565	2.065	1.577	0.118	-0.840	7.353
1	78.3379	2.048	38.260	0.000	74.276	82.400

Omnibus:	16.191	Durbin-Watson:	1.885
Prob(Omnibus):	0.000	Jarque-Bera (JB):	36.807
Skew:	-0.534	Prob(JB):	1.02e-08
Kurtosis:	5.742	Cond. No.	1.14

Warnings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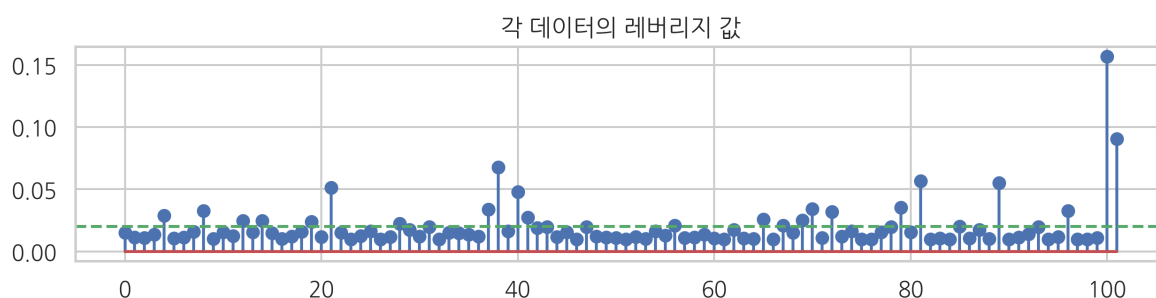
[1] Standard Errors assume that the covariance matrix of the errors is correctly specified.

선형회귀 결과에서 `get_influence` 메서드를 호출하면 영향도 정보 객체를 구할 수 있다. 이 객체는 `hat_matrix_diag` 속성으로 레버리지 벡터의 값을 가지고 있다.

In [3]:

```
influence = result.get_influence()
hat = influence.hat_matrix_diag

plt.figure(figsize=(10, 2))
plt.stem(hat)
plt.axhline(0.02, c="g", ls="--")
plt.title("각 데이터의 레버리지 값")
plt.show()
```



수동으로 추가한 마지막 두 개의 데이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레버리지 값이 0.02 근처의 낮은 값을 가진다.

$$\text{레버리지 평균} \approx \frac{2}{102} \approx 0.02$$

레버리지의 합이 2와 같아진다는 것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.

In [4]:

```
hat.sum()
```

Out[4]:

```
2.0000000000000004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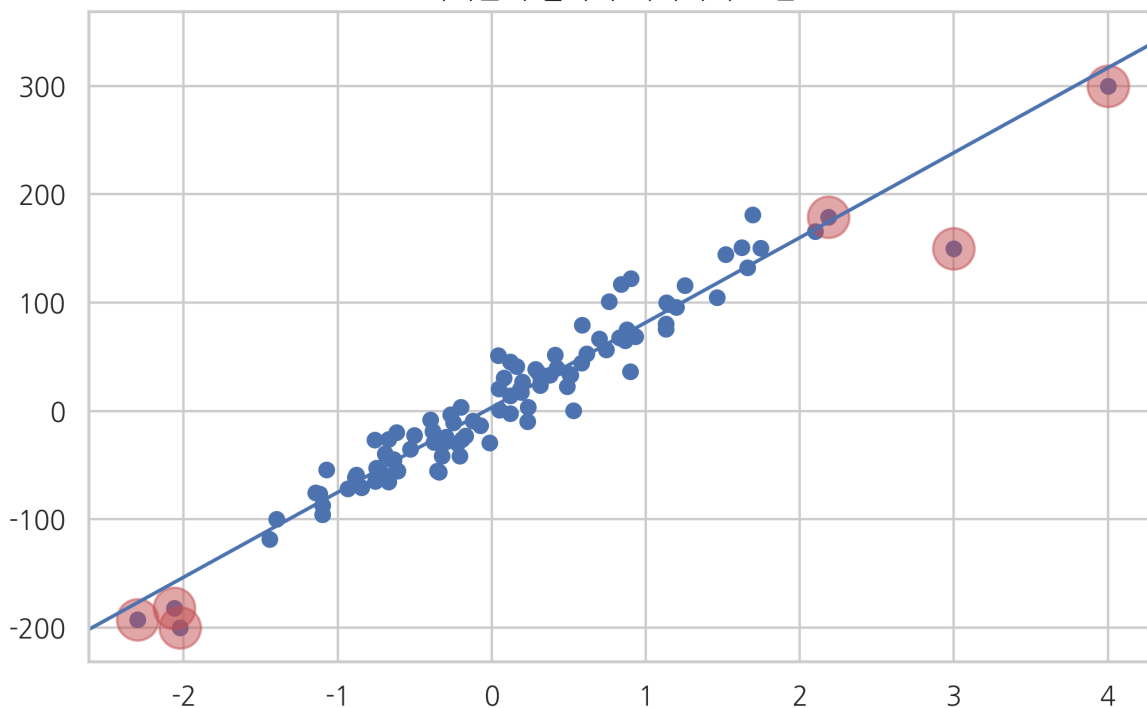
위 결과를 이용하여 레버리지가 큰 데이터만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. 여기에서는 레버리지 값이 0.05를 넘는 데이터만 큰 원으로 표시하였다.

In [5]:

```
ax = plt.subplot()
plt.scatter(X0, y)
sm.graphics.abline_plot(model_results=result, ax=ax)

idx = hat > 0.05
plt.scatter(X0[idx], y[idx], s=300, c="r", alpha=0.5)
plt.title("회귀분석 결과와 레버리지 포인트")
plt.show()
```

회귀분석 결과와 레버리지 포인트



위 그림에서 데이터가 무리지어 있지 않고 단독으로 존재할수록 레버리지가 커짐을 알 수 있다.

레버리지의 영향

레버리지가 큰 데이터가 모형에 주는 영향을 보기 위해 이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의 모형과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모형을 아래에 비교하였다. 레버리지가 큰 데이터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가에 따라 모형에 주는 영향이 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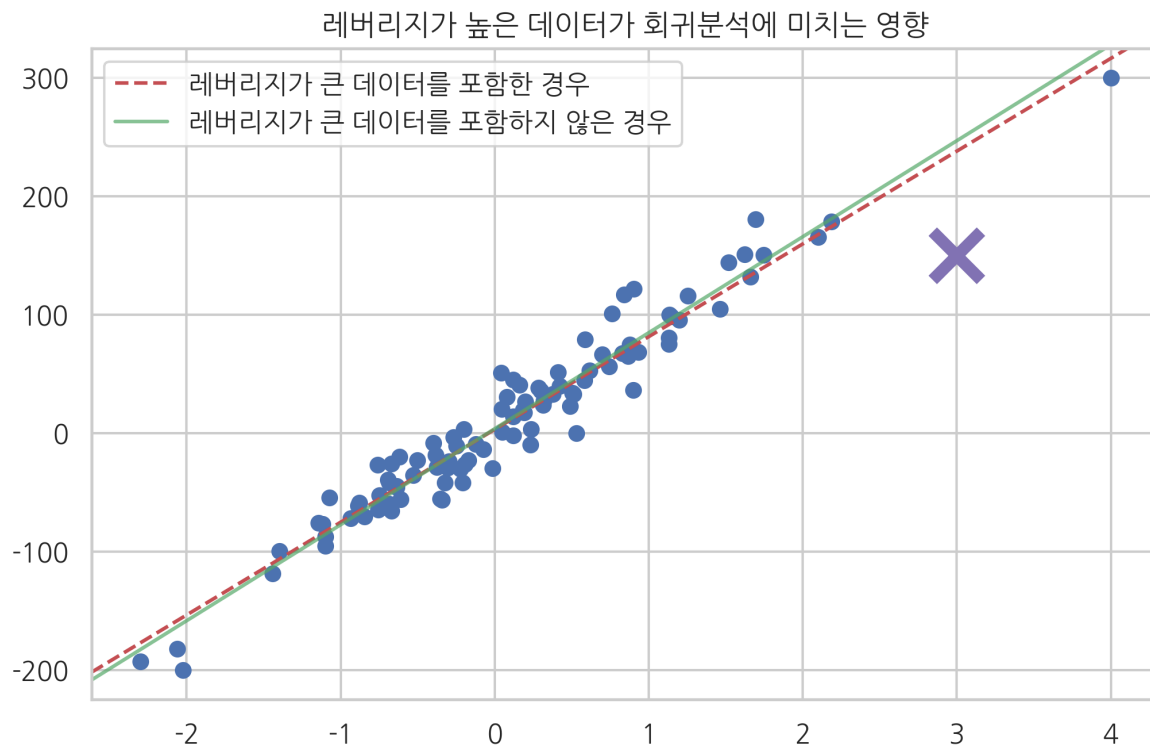
것을 알 수 있다.

In [6]:

```
model2 = sm.OLS(y[:-1], X[:-1])
result2 = model2.fit()

ax = plt.subplot()
plt.scatter(X0, y)
sm.graphics.abline_plot(model_results=result,
                        c="r", linestyle="--", ax=ax)
sm.graphics.abline_plot(model_results=result2,
                        c="g", alpha=0.7, ax=ax)

plt.plot(X0[-1], y[-1], marker='x', c="m", ms=20, mew=5)
plt.legend(["레버리지가 큰 데이터를 포함한 경우", "레버리지가 큰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"],
          loc="upper left")
plt.title("레버리지가 높은 데이터가 회귀분석에 미치는 영향")
plt.show()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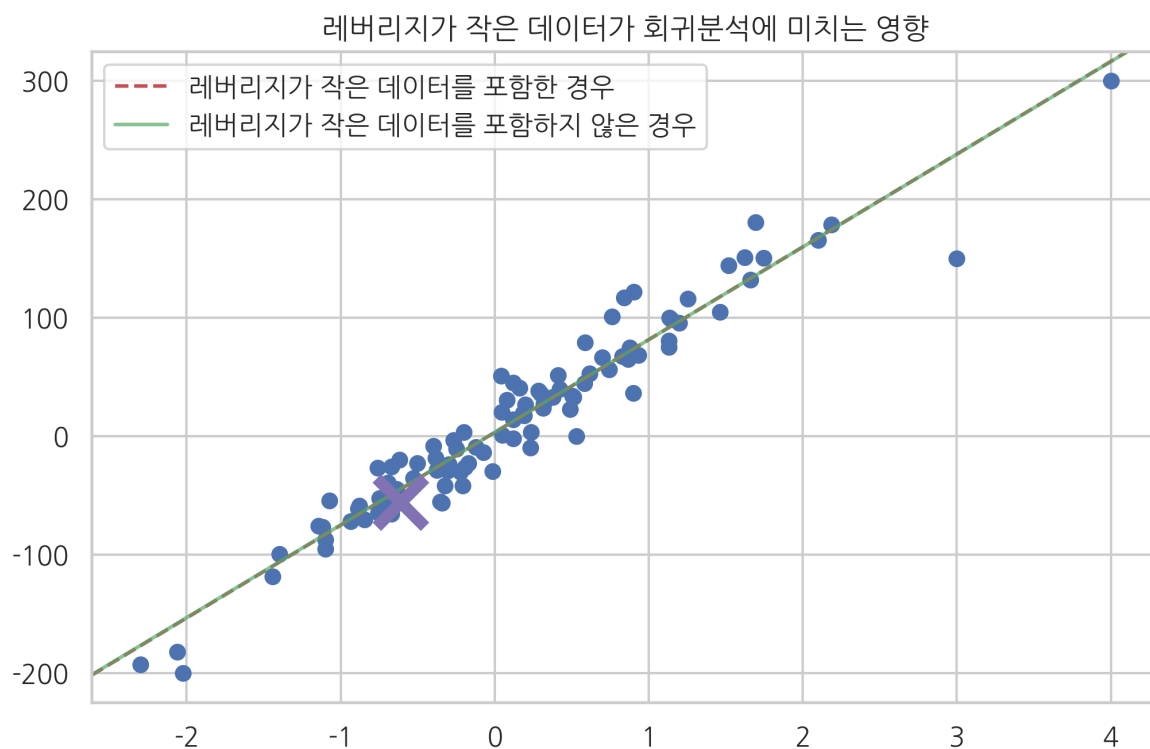
반대로 레버리지가 작은 데이터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모형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.

In [7]:

```
model3 = sm.OLS(y[1:], X[1:])
result3 = model3.fit()

ax = plt.subplot()
plt.scatter(X0, y)
sm.graphics.abline_plot(model_results=result,
                        c="r", linestyle="--", ax=ax)
sm.graphics.abline_plot(model_results=result3,
                        c="g", alpha=0.7, ax=ax)

plt.plot(X0[0], y[0], marker='x', c="m", ms=20, mew=5)
plt.legend(["레버리지가 작은 데이터를 포함한 경우", "레버리지가 작은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"],
           loc="upper left")
plt.title("레버리지가 작은 데이터가 회귀분석에 미치는 영향")
plt.show()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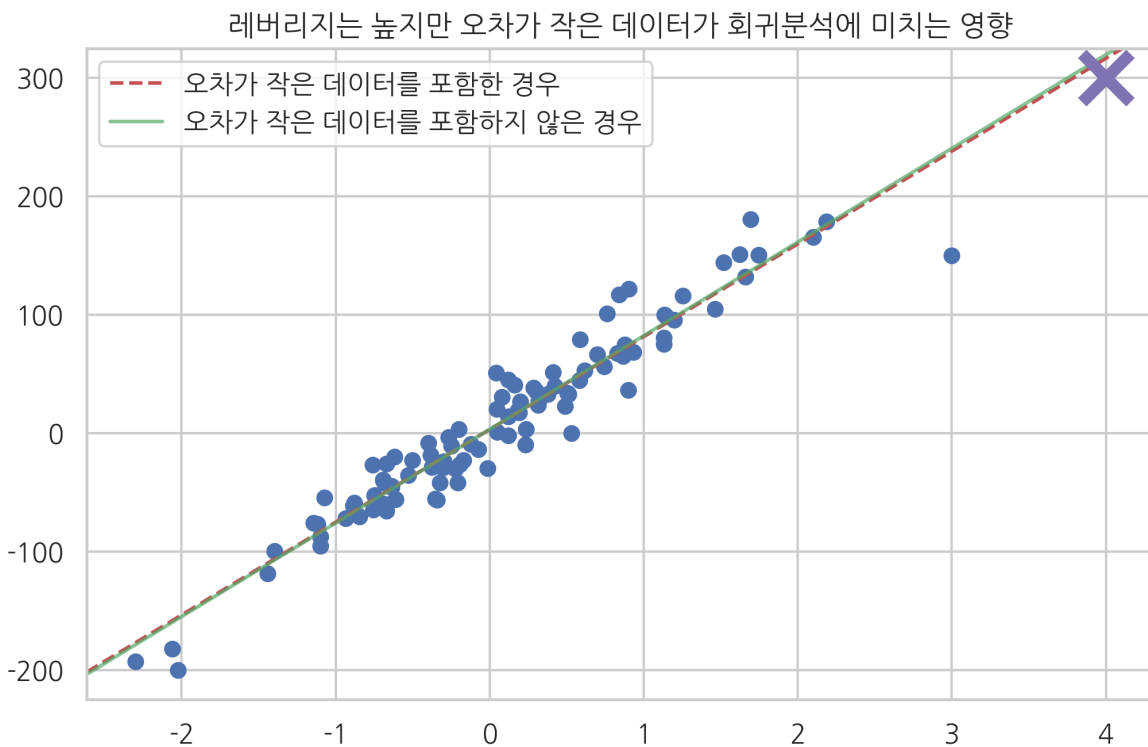
혹은 레버리지가 크더라도 오차가 작은 데이터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모형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.

In [8]:

```
idx = np.array(list(range(100)) + [101])
model4 = sm.OLS(y[idx], X[idx, :])
result4 = model4.fit()

ax = plt.subplot()
plt.scatter(X0, y)
sm.graphics.abline_plot(model_results=result,
                        c="r", linestyle="--", ax=ax)
sm.graphics.abline_plot(model_results=result4,
                        c="g", alpha=0.7, ax=ax)

plt.plot(X0[-2], y[-2], marker='x', c="m", ms=20, mew=5)
plt.legend(["오차가 작은 데이터를 포함한 경우", "오차가 작은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"],
          loc="upper left")
plt.title("레버리지는 높지만 오차가 작은 데이터가 회귀분석에 미치는 영향")
plt.show()
```



아웃라이어

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와 동떨어진 값을 가지는 데이터, 즉 잔차가 큰 데이터를 **아웃라이어(outlier)**라고 한다. 그런데 잔차의 크기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아웃라이어를 찾으려면 이 영향을 제거한 표준화된 잔차를 계산해야 한다.

표준화 잔차

개별적인 잔차의 표준편차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.

$$e = (I - H)\epsilon = M\epsilon$$

$$\begin{aligned}
\text{Cov}[e] &= E[M\epsilon\epsilon^T M^T] \\
&= ME[\epsilon\epsilon^T]M^T \\
&= M\sigma^2 I M^T \\
&= \sigma^2 M M^T \\
&= \sigma^2 M M \\
&= \sigma^2 M \\
&= \sigma^2(I - H)
\end{aligned}$$

위 식에서는 M 이 대칭 행렬이고 $M^2 = M$ 라는 사실을 이용하였다.

대각 성분만 보면 개별적인 잔차의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.

$$\text{Var}[e_i] = \sigma^2(1 - h_{ii})$$

즉, 오차의 표준 편차는 모든 표본에 대해 같지만 개별적인 잔차의 표준편차는 레버리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.

오차의 분산은 알지 못하므로 잔차 분산으로부터 추정한다.

$$\text{Var}[e_i] \approx s^2(1 - h_{ii})$$

이 식에서 s 는 다음과 같이 구한 오차의 표준편차 추정값이다.

$$s^2 = \frac{e^T e}{N - K} = \frac{RSS}{N - K}$$

잔차를 레버리지와 잔차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동일한 표준 편차를 가지도록 스케일링한 것을 **표준화 잔차** (standardized residual 또는 normalized residual 또는 studentized residual)라고 한다.

$$r_i = \frac{e_i}{s\sqrt{1 - h_{ii}}}$$

statsmodels를 이용한 표준화 잔차 계산

아래에서는 각 데이터의 잔차를 표시하였다. 잔차는 `RegressionResult` 객체의 `resid` 속성에 있다.

In [9]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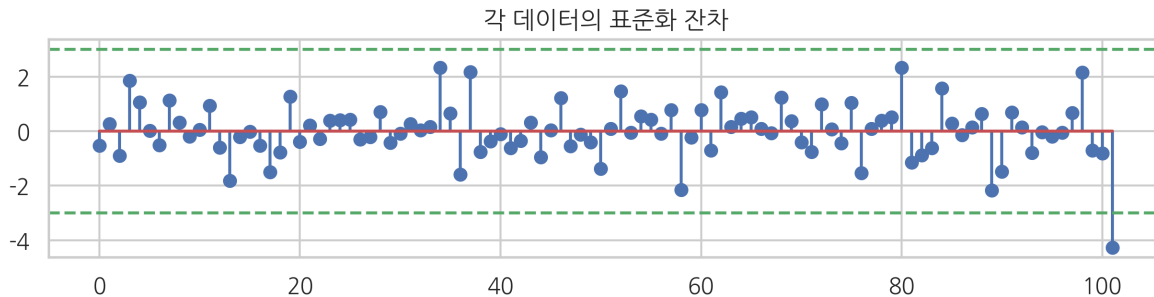
```
plt.figure(figsize=(10, 2))
plt.stem(result.resid)
plt.title("각 데이터의 잔차")
plt.show()
```



표준화 잔차는 `resid_pearson` 속성에 있다. 보통 표준화 잔차가 2~4보다 크면 아웃라이어로 본다.

In [10]:

```
plt.figure(figsize=(10, 2))
plt.stem(result.resid_pearson)
plt.axhline(3, c="g", ls="--")
plt.axhline(-3, c="g", ls="--")
plt.title("각 데이터의 표준화 잔차")
plt.show()
```



Cook's Distance

회귀 분석에는 잔차의 크기가 큰 데이터가 아웃라이어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레버리지와 잔차의 크기가 모두 큰 데이터들이다. 잔차와 레버리지를 동시에 보기 위한 기준으로 Cook's Distance가 있다.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값으로 레버리지가 커지거나 잔차의 크기가 커지면 Cook's Distance 값이 커진다.

$$D_i = \frac{r_i^2}{\text{RSS}} \left[\frac{h_{ii}}{(1 - h_{ii})^2} \right]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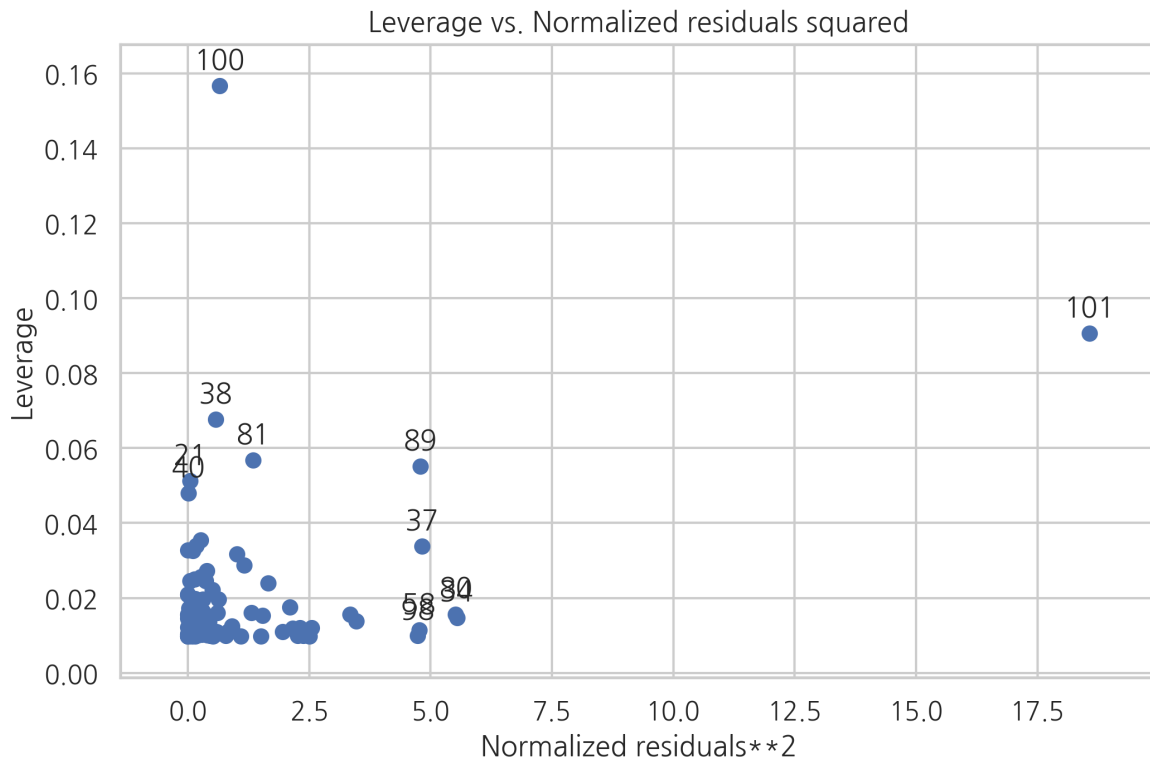
Fox' Outlier Recommendation 은 Cook's Distance가 다음과 같은 기준값보다 클 때 아웃라이어로 판단하자는 것이다.

$$D_i > \frac{4}{N - K - 1}$$

모든 데이터의 레버리지와 잔차를 동시에 보려면 plot_leverage_resid2 명령을 사용한다. 이 명령은 x축으로 표준화 잔차의 제곱을 표시하고 y축으로 레버리지값을 표시한다. 데이터 아이디가 표시된 데이터들이 레버리지가 큰 아웃라이어이다.

In [11]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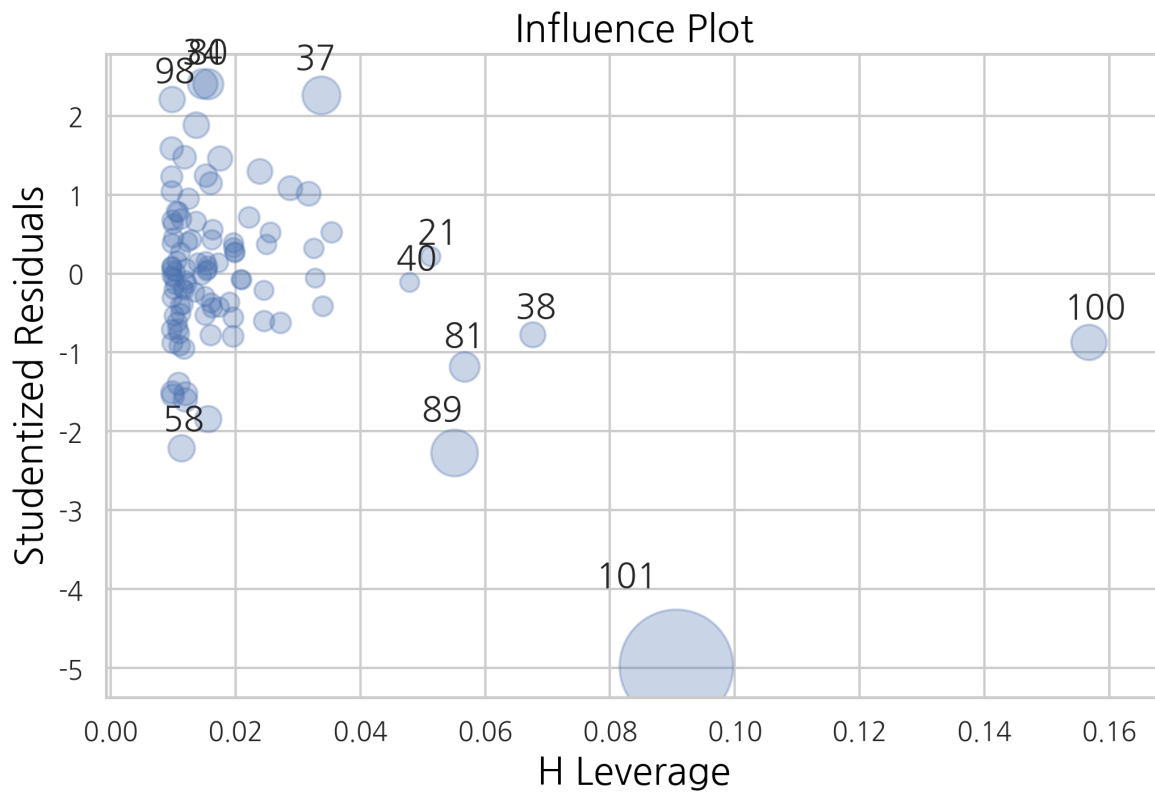
```
sm.graphics.plot_leverage_resid2(result)
plt.show()
```



influence_plot 명령을 사용하면 Cook's distance를 버블 크기로 표시한다.

In [12]:

```
sm.graphics.influence_plot(result, plot_alpha=0.3)
plt.show()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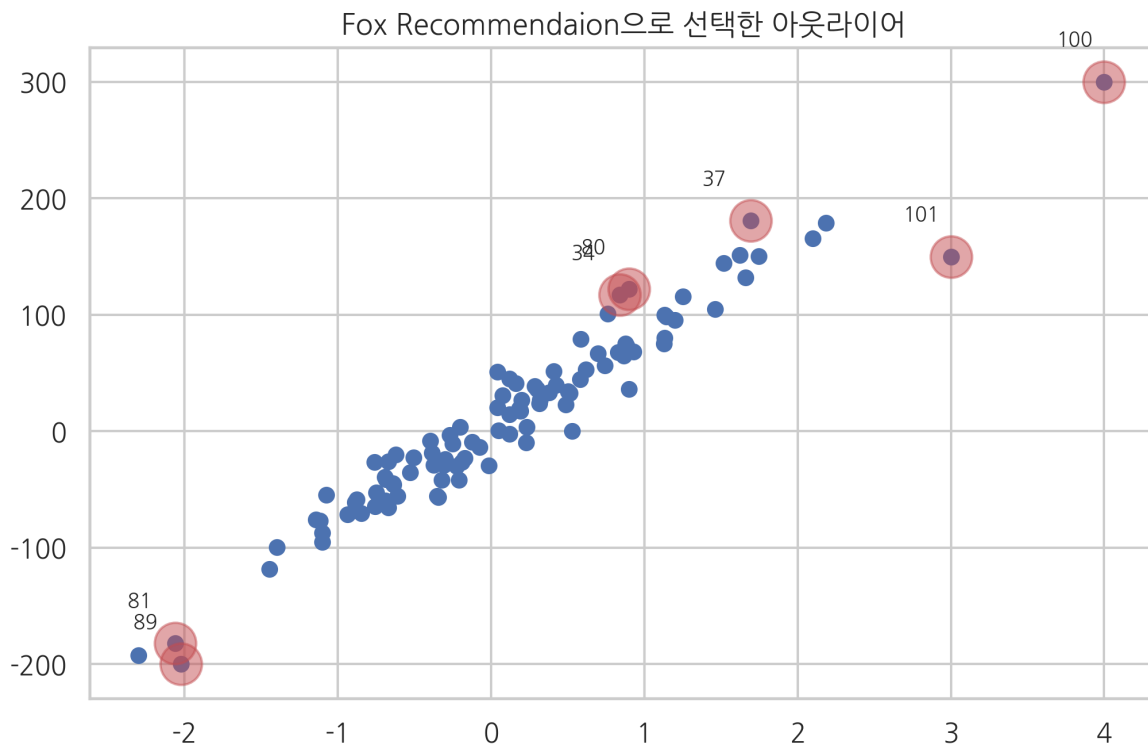
다음 그림은 위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 Fox recommendation 기준으로 아웃라이어를 선택한 결과이다.

In [13]:

```
from statsmodels.graphics import utils

cooks_d2, pvals = influence.cooks_distance
K = influence.k_vars
fox_cr = 4 / (len(y) - K - 1)
idx = np.where(cooks_d2 > fox_cr)[0]

ax = plt.subplot()
plt.scatter(X0, y)
plt.scatter(X0[idx], y[idx], s=300, c="r", alpha=0.5)
utils.annotate_axes(range(len(idx)), idx,
                    list(zip(X0[idx], y[idx])), [(-20, 15)] * len(idx), size="small", ax=ax)
plt.title("Fox Recommendaion으로 선택한 아웃라이어")
plt.show()
```



보스턴 집값 문제에 아웃라이어를 적용해 보자. MEDV가 50인 데이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 데이터이므로 아웃라이어라고 판단할 수 있다. 나머지 데이터 중에서 폭스 추천공식을 사용하여 아웃라이어를 제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In [14]:

```
from sklearn.datasets import load_boston
boston = load_boston(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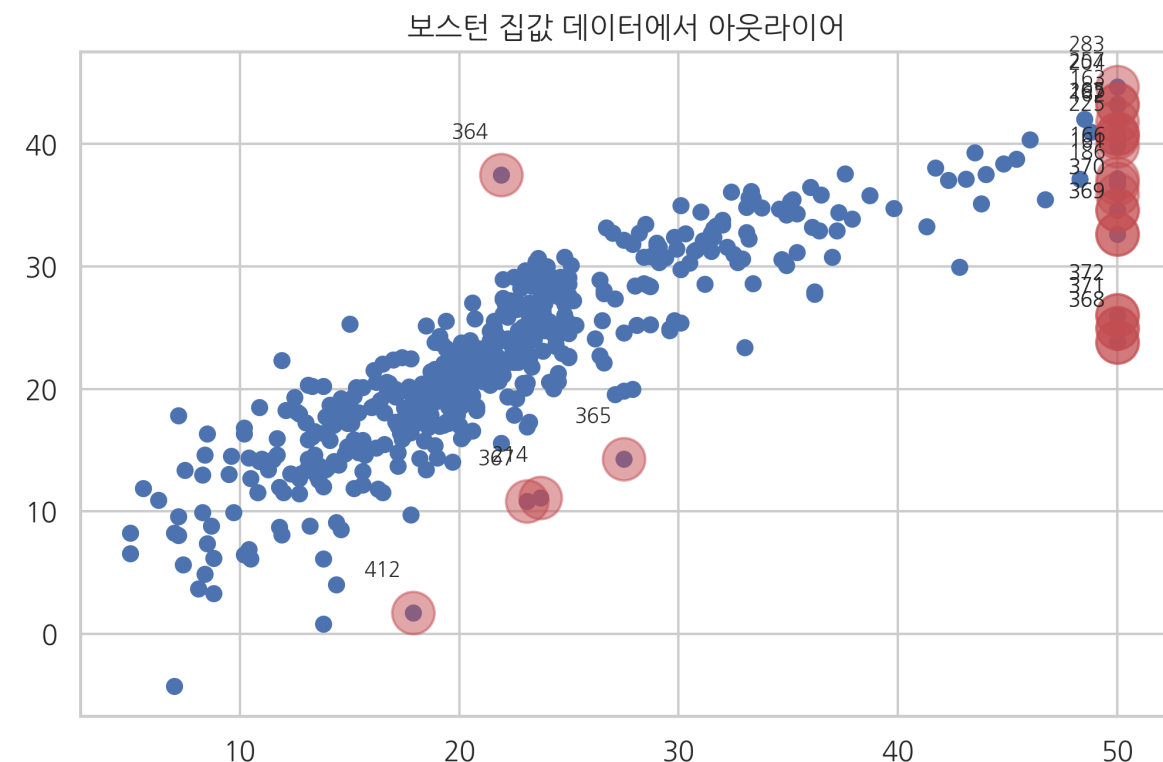
dfX0 = pd.DataFrame(boston.data, columns=boston.feature_names)
dfX = sm.add_constant(dfX0)
dfy = pd.DataFrame(boston.target, columns=["MEDV"])

model_boston = sm.OLS(dfy, dfX)
result_boston = model_boston.fit()
pred = result_boston.predict(dfX)

influence_boston = result_boston.get_influence()
cooks_d2, pvals = influence_boston.cooks_distance
K = influence.k_vars
fox_cr = 4 / (len(y) - K - 1)
idx = np.where(cooks_d2 > fox_cr)[0]

# MEDV = 50 제거
idx = np.hstack([idx, np.where(boston.target == 50)[0]])

ax = plt.subplot()
plt.scatter(dfy, pred)
plt.scatter(dfy.MEDV[idx], pred[idx], s=300, c="r", alpha=0.5)
utils.annotate_axes(range(len(idx)), idx,
                    list(zip(dfy.MEDV[idx], pred[idx])), [(-20, 15)] * len(idx), size="small", ax=ax)
plt.title("보스턴 집값 데이터에서 아웃라이어")
plt.show()
```



다음은 이렇게 아웃라이어를 제외한 후에 다시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.

In [15]:

```
idx2 = list(set(range(len(dfX))).difference(idx))
dfX = dfX.iloc[idx2, :].reset_index(drop=True)
dfy = dfy.iloc[idx2, :].reset_index(drop=True)
model_boston2 = sm.OLS(dfy, dfX)
result_boston2 = model_boston2.fit()
print(result_boston2.summary())
```

OLS Regression Results

```
=====
Dep. Variable:          MEDV    R-squared:                0.812
Model:                  OLS    Adj. R-squared:            0.806
Method:                 Least Squares    F-statistic:        156.1
Date:                  Fri, 19 Apr 2019    Prob (F-statistic):    2.41e-161
Time:                  09:35:52    Log-Likelihood:       -1285.2
No. Observations:      485    AIC:                2598.
Df Residuals:          471    BIC:                2657.
Df Model:              13
Covariance Type:       nonrobust
=====
```

	coef	std err	t	P> t	[0.025	0.975]
const	18.8999	4.107	4.602	0.000	10.830	26.969
CRIM	-0.0973	0.024	-4.025	0.000	-0.145	-0.050
ZN	0.0278	0.010	2.651	0.008	0.007	0.048
INDUS	-0.0274	0.046	-0.595	0.552	-0.118	0.063
CHAS	0.9228	0.697	1.324	0.186	-0.447	2.292
NOX	-9.4922	2.856	-3.323	0.001	-15.105	-3.879
RM	5.0921	0.371	13.735	0.000	4.364	5.821
AGE	-0.0305	0.010	-2.986	0.003	-0.051	-0.010
DIS	-1.0562	0.150	-7.057	0.000	-1.350	-0.762
RAD	0.1990	0.049	4.022	0.000	0.102	0.296
TAX	-0.0125	0.003	-4.511	0.000	-0.018	-0.007
PTRATIO	-0.7777	0.098	-7.955	0.000	-0.970	-0.586
B	0.0107	0.002	5.348	0.000	0.007	0.015
LSTAT	-0.2846	0.043	-6.639	0.000	-0.369	-0.200

```
=====
Omnibus:                45.944    Durbin-Watson:          1.184
Prob(Omnibus):           0.000    Jarque-Bera (JB):        65.791
Skew:                    0.679    Prob(JB):                5.17e-15
Kurtosis:                4.188    Cond. No.:               1.59e+04
=====
```

Warnings:

- [1] Standard Errors assume that the covariance matrix of the errors is correctly specified.
- [2] The condition number is large, 1.59e+04. This might indicate that there are strong multicollinearity or other numerical problems.